

임진왜란 전투흔적 조사 본격 착수

진안군, 완주로 넘어가는
웅치길 일대 발굴조사 나서

진안군은 전라북도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지켜낸 주요 전투지인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에서 웅치전투의 흔적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웅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성황당터와 봉수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 추정 고분군 등에 대한 시굴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웅치전적지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주로 향하는 왜군과 벌였던 웅치전투의 현장이다.

그 동안 조사연구 결과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에서 완주 소양면 신촌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지역인 웅치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와 진안군·완주군은 이 고갯길 일대가 웅치전투의 현장임을 객관적·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시굴·발굴조사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임진왜란 당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과 진터 등이 조사되었으며, 성황당터와 봉수터, 출토유물 등의 존재를 통해 이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전투흔적 발굴조사 성황당터 전경.

고갯길이 조선시대 이전부터 임진왜란 전후까지도 교통과 통신의 주요 거점 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안군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성황당터와 봉수터의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고, 추정 고분군 등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웅치전투와 관련된 흔적이 추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웅치전투의 현장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향후 국가 사적 지정과 성역화 사

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완주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은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여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1호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부귀면 세동리 일대의 전적지 현장이 올바르게 보존되고, 역사교육과 순국선열 추모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 8월 여름 시즌을 맞아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객석 나눔 사업'을 전개한다.

전주문화재단,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객석 나눔 사업' 전개

(재)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하 상설공연단)은 8월 여름 시즌을 맞아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객석 나눔 사업'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기관, 시설 등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에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은 올해 상설로 진행 중인 야간 상설공연 전주 마당창극 '진짜 진짜 응고집'과 평일 상설공연 한옥마을

마당놀이 '별주부가 됐다!'의 객석 일부(전체 객석의 10% 이내)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공연 관람이 어려운 각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8월 한 달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전화 063-283-9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석 단장은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새롭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객석 나눔을 준비했다"면서 "문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마을활용 야간 상설공연 전주마당창극 '진짜 진짜 응고집'은 10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8월 후반기에는 실내 공연장인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한옥마을 평일 상설공연 한옥마을 마당놀이 '별주부가 됐다!'는 10월 11일까지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9월에는 매주 금요일에, 8·10월에는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송효철 기자

세계 전통 무예가 한자리에!

태권도원에서 내달 2일부터 글로벌무술문화 교류의 장 열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과 전북도는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이하 교류축제)'를 태권도원에서 개최한다.

연 인원 3천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류축제에는 중국, 핀란드,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캐나다, 몽골, 마카오 등 12개국이 참가한다. 특히, 중국 참가자 6백여명은 2일 오전 군산항으로 입국 해 전주한옥마을,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를 돌아 본 후 당일 저녁 태권도원에 입소할 예정으로, 중국 내에 태권도원과 전라북도를 소개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류축제의 핵심인 태권도 친선 교류대회는 8월 3일과 4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폼새' 및 '겨루기' 부문과 '오래 열차기' 및 '전자호구 스피드 킥' 등 태권 기네스 종목의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3일 밤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축제 개막식이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ITF 태권도 시연, 유네스코 ICM 무예시범단의 무술공연 등이 펼쳐져 태권도를 비롯한 세계 전통 무예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교류축제 기간 중 태권체조 체험과 나전자개로 꾸미는 태권



챔피언 메달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는 세계인들이 태권도를 통해 하나되는 만남의 장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태권도 진흥과 보급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편,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 기간 중 8월 3일과 4일에는 태권도원을 무료로 개방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관요 도자상품,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입점 선정

부안청자박물관은 고려삼강청자 발생지답게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적 독창미를 갖춘 새로운 도자상품을 개발하여 부안청자의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청자박물관(부안관요)에서는 청자여의두문 반상기 등을 무균열 청자점토로 제작해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 선정돼 입점했다고 밝혔다.

한류의 세계화가 한창인 요즘 한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부안청자의 위상을 높이고자 청자박물관(부안관요) 도예가 김민식, 강의석 선생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청자여의두문 반상기는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의 여의두문을 연속무늬로 표현하였고 내면에는 백유를 시유하여 음식을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삼강기법을 응용한 청자잔과 한국의 대표적인 한옥을 모티브로 한 수저받침을 제작하여 쓰임 있고 멋스러운 부안반의 청자를 제작·생산하여 고려시대 화려했던 청자의 위상을 높이고 부안관요에서 제작한 청자가



대한민국 대표 공예상품으로 발전 시키고자 했다. 이번에 제작된 청자반상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용출시험분석결과 환경호르몬이 나, 카드뮴과 같은 유해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시험성적표를 받았으며, 무균열 청자토로 제작하여 음식물의 냄새와 색상 변질이 없어 우수한 생활도자기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청자박물관 조미영 팀장은 "이번 도자연구와 상품개발을 통해 21세기형 새로운 청자를 개발하여 부안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